

7월15일 월요일

전도서 1장 헛되고 헛되니

전도자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서(2절), 결국 인생을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3절). 어떻게 보면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자의 고백이 비관론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장과 전도서 전반에서 강조되는 다음 구절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1) 3절: ( )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 2) 14절: 내가 ( )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이 세상은 인간의 죄와 함께 타락하여, 무의미하고 유익이 없어 우리 인생에 피곤과 근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2장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본장 24~26절은 1, 2장의 소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 )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장 ~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알았다.

본장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일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12절, 22절)

4장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홀로가 아닌 함께

"( )이면 패하겠거니와 ( )이면 맞설 수 있나니, ( )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돕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라이프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7월16일 화요일

5장 하나님의 선물

본장은 해 아래서 재물과 부요함을 위한 수고도 헛됨을 기록합니다.(10-17절) 그러나 18-20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 )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 )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6장 해 아래 사는 동안 겪는 불행과 허무

본장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겪는 불행한 일 즉,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1) 2절: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경우  
2) 3절:

7장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본장 1-15절에서 전도자는, 불행이나 재난이 반드시 나쁜 것,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증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일(13절)을 겪을 때에는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돌아보고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 ),  
곤고한 날에는 ( ).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8장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들

본장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되고 부조리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만(11절), 전도자는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나요?(13절)

7월17일 수요일

9장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

5장의 말씀에서와 같이 본장 7-10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안식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 1) 7절: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으라.
- 2) 8절: 의복을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 3) 9절:

10장 지혜자와 우매자

본장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2-15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언어생활을 기록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 ),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당신의 언어생활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말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로워서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11장 불확실한 미래에서 현재를 살아가기

본장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 ),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 )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 하실 줄 알라."

12장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장에서, 해 아래 있는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마지막 12장에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  
또한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이라고 강조하나요? (13절)

7월18일 목요일

아가 1장 솔로몬 왕과 솔라미 여인

본장은 솔로몬 왕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솔라미 여인과의 만남과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의 신분과 환경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솔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이 무엇보다 더 진하다고 표현하나요?

2장 나의 사랑 나의 여여쁜 자야

본장은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통해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10,13절)

\*이 고백은 마치 신랑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3장 신부의 꿈

본장에서 신부는 꿈속에서조차 신랑을 그리워한다고 고백하며(1-5절), 이어 거친 들을 지나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6-11절) 신랑은 혼인을 위해 신부에게 올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나요?

4장 신랑의 노래

본장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노래입니다. 8-12절에서 신랑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 ),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7월19일 금요일

5장 신랑을 향한 신부의 노래

본장은 돌연 신랑과 갈등을 빚지만(2-6절), 이내 신부는 떠나간 신랑을 생각하며 간절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신부는 신랑을 찾아 헤매며, 사모하는 신랑의 모습을 비유하며 노래합니다. 이런 신랑은 신부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16절)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 ), 나의 ( )로다."

6장 동산에서 신랑과 신부의 만남

본장에서 신부는 적극적으로 신랑을 찾아 나서고, 마침내 둘은 기쁘게 재회 합니다. 2:16절과, 6:3절에 반복되는 사랑의 고백을 써 보세요.

7장 하나되는 사랑

본장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1-9절), 신부가 신랑에게 화답하는 노래로(10-13절)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부는, 10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라고 고백하며 동시에 12절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되신 하나님께 아가서의 말씀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저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8장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본장에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무엇도 끄지 못하고, 무엇도 삼키지 못한다고 하나요?

7월20일 토요일

이사야 1장 배교의 시대에 전해진 이사야의 복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1절). 당시는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습니다(11-17절). 이때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고 유다를 부르십니다(18절). 이것은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와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의도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 )과 같이 희어질것ियो,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 )같이 희게 되리라."

2장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 메시지

본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 임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1-4절에서는 유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반면 5-22절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저주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 )을 의지하지 말라." (22절) "오라 우리가 ( )에 행하자.(5절)

3장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본장에서 이사야는 특별히 지도층 인사들(13-15절)과 부유층 여인들(16-26절)의 죄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인지 각각 써 보세요. 1) 지도층 인사들 (장로들, 고들)의 죄: 2) 부유층 여인들의 죄:

4장 여호와의 싹

본장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소망은 바로 ( )입니다(2절). 이스라엘은 마치 죽은 고목과 같았는데 이제 거기서 한 싹이 나오는 것을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그 싹은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남은 자들은 거룩하다는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2-3절).